로스쿨의 저주? … 광주·전남 검사·판사 씨가 마른다

전남대 검사 2년 연속 없고 로클럭 올해 3명 뿐

법조계 중앙 인맥 고사·변호사만 비정상적 급증

전국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녀왔던 광주·전남지역 법조인력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 지역법관제가 도입된 법원에는 일부가 진출하고 있으나 검사 임용은 2년 연속 실패했다. 여기에 로스쿨 도입과 함께 오는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고시에서 전남대 합격자는 지난해 사상 최소를 기록했다.

◇2년 연속 검사 임용 실패=이에 따라 법원·검찰 등 법조계 중앙인맥이 고사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변호사 인력만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전남대 로스쿨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전남대 로스쿨 졸업 예정자 126명(지난해 졸업시험 탈락자 10명 포함) 가운데 법원의 로클럭(재판연구원) 신규 채용에 3명이 합격했다. 그러나 검사 신규임용에는 10명이 지원했다가 모두 떨어졌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년 연속 검사를 배출하지 못한 로스쿨은 전남대를 포함해 6곳이다.

또 대검찰청이 전국적으로 검사를 한꺼번에 임용하는 검찰과 달리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고등법원 6곳이 개별적으로 뽑는 로클럭 역시 올해부터 사법연수원 출신까지 채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합격자는 지난해(6명)의 반토막이 됐다.

이처럼 전남대 로스쿨 졸업생들의 법원·검찰 진출이 최저수준인 가운데 지난해 전남대 사법고시 합격자도 3명에 불과했다. 지난 2011년의 16명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수도권·충청·영남·강원은 물론 전북권 내 로스쿨은 꾸준히 검사를 배출하고 있으나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로스쿨이 있는 전남대만 2년 연속 내지 못해 검찰 내 지역인맥이 단절됐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법원·검찰·군법무관 등 국가기관으로 진출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변호사로 취업 또는 개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변호사업계는 '공급 과잉'으로 새로운 부작용을 불러올 개연성도 높다.

◇전남대 로스쿨 지원 시급=전남대 로스쿨의 전략 부재가 이 같은 현상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지역 로스쿨들이 우수 졸업생들을 법원·검찰·군법무관 등에 분리 지원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데 반해 전남대의 경우 졸업생들의 의사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다.

지역 출신 한 검찰 간부는 "인사 소외 등으로 인해 고위간부로 진출하는 지역 출신이 손으로 꼽을 정도인데, 로스쿨 졸업생들이 검찰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뿌리마저 사라지는 셈"이라며 "로스쿨 추천자에 대한 가산점 부과, 지역 안배 등의 정부 차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대 로스쿨 유전철 부교수는 "검사 임용에 응한 10명 모두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정도로, 우수 학생들이 로클럭만을 선호하면서 빚어진 결과"라며 "로스쿨 차원에서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대 로스쿨에 대한 지역 내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인증평가에서 투자 교육비 미달, 연구소 운영비용 미달 등 재정 취약에 따라 고려대, 동아대 등과 함께 인증유예(개선권고)를 받는 불명예까지 안아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대 사법고시 합격자 수 (2007~2012년)

2007년	19
2008년	19
2009년	26
2010년	8
2011년	16
2012년	3

■전국 25개 로스쿨 로클럭·예비검사 배출 현황(가나다순, 법률신문 참조)

학교 (정원, 명)	로클럭 (재판연구원) '12	'13	예비검사 '12	'13
강원대(40)	3	1	1	0
건국대(40)	미제출	2	0	0
경북대(120)	5	4	1	1
경희대(60)	2	1	3	1
고려대(120)	6	3(추정)	3	3
동아대(80)	1	1	0	0
부산대(120)	4	5	2	1
서강대(40)	1	1	0	1
서울대(150)	4	1	8	10
서울시립대(50)	3	1	1	1
성균관대(120)	9	6	2	5
아주대(50)	미제출	2	1	0
연세대(120)	7	3	7	3
영남대(70)	미제출	3	0	1
원광대(60)	2	1	0	0
인하대(50)	3	1	0	2
전남대(120)	**6**	**3**	**0**	**0**
전북대(80)	2	1	1	1
제주대(40)	2	0	0	0
중앙대(50)	3	1	1	2
충남대(100)	6	3	5	1
이화여대(100)	미제출	6	2	0
한국외대(50)	2	1	0	1
충북대(70)	3	0	0	0
한양대(100)	8	4	4	3

나원참 〈8741〉 김종두

열두살 소녀의 죽음 왜?

광양에서 초등생 아파트 옥상서 투신

스마트폰 문자 몰두해 엄마에게 꾸중

스마트폰 메시지 앱(응용프로그램)에 몰두하던 한 초등학생이 이를 꾸짖던 엄마와 심하게 다툰 뒤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지난 26일 오후 4시50분께 광양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A(12)양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광양경찰은 A양이 미용실에서 주변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받다 엄마에게 꾸중을 듣고 뛰쳐나갔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엄마에게 스마트폰을 빼앗긴 A양이 화가 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양이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과도한 사용으로 가족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앱은 지난 2010년 3월 첫 선을 보인 뒤 지난해까지 가입자가 4200만 명을 넘어섰다. 앱만 다운받으면 특별한 돈을 들이지 않고 무한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매일 앱을 이용해 무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도 2000만 명이 넘고 이들은 하루 평균 83건씩 메시지를 보낸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특성 탓에 학원을 오가며 공부하느라 바쁜 학생들을 연결시켜주는 소통수단이라는 장점 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끊이질 않는다. 시도때도 없이 울려대는 알림음이나 메시지에 신경쓰면서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점 등으로 학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지적과 중독 우려도 적지 않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친구와 카톡으로 대화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좋아한다는 응답도 나왔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8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의재 허백련 유적 '관풍대'에 불

300만원 피해…화인은 미궁

남종화의 대가인 의재 허백련 선생(1891~1977년)의 대표적인 유적지 중 하나인 관풍대(觀風臺)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소방 당국과 경찰이 합동조사에 나섰다.

27일 광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32분께 광주시 동구 운림동 의재미술관 인근 관풍대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벽돌 구조로 된 단층 39㎡의 건물 내부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관풍대는 의재 선생이 지인들과 학생들을 위해 만든 차실(茶室)로, 수개월 전까지 다례 실습장으로 쓰였다.

화인은 미궁에 빠져 있다. 화재 발생시간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이고 건물과 인접해 있는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소방 당국은 경찰과 합동으로 주변 탐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종합병원 의사들 '의약품 리베이트' 받아 입건

전국 80여명 형사처벌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법인 신용카드, 현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혐의로 CJ제일제당 등 국내 유명 제약업체 3곳과 부사장급 임원 등 해당 업체 임직원 1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전남 종합병원 의사들을 비롯, 80여명의 의사들이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법인 신용카드, 현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J제일제당 등 국내 유명 제약업체 3곳과 부사장급 임원 등 해당 업체 임직원 1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수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 등 83명을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담양한과 벌써 '설 특수'

설(2월 10일)을 앞두고 전통한과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27일 오후 담양 창평면의 (주)담양한과 공장에 직원들이 신라호텔 등 전국 각지로 배송될 유과를 비롯해 인삼, 호박, 생강 등의 정과로 구성된 한과세트를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승용차·트럭 추돌 화재

지난 25일 밤 11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 빛고을로에서 배모(23)씨가 몰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가 앞서가던 14.5t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제네시스에서 불이나 차량이 전소하고 트럭에 실려 있던 설 선물세트 등이 타 모두 3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돌 사고 과정에서, 승용차 엔진에서 발생한 불꽃이 화물차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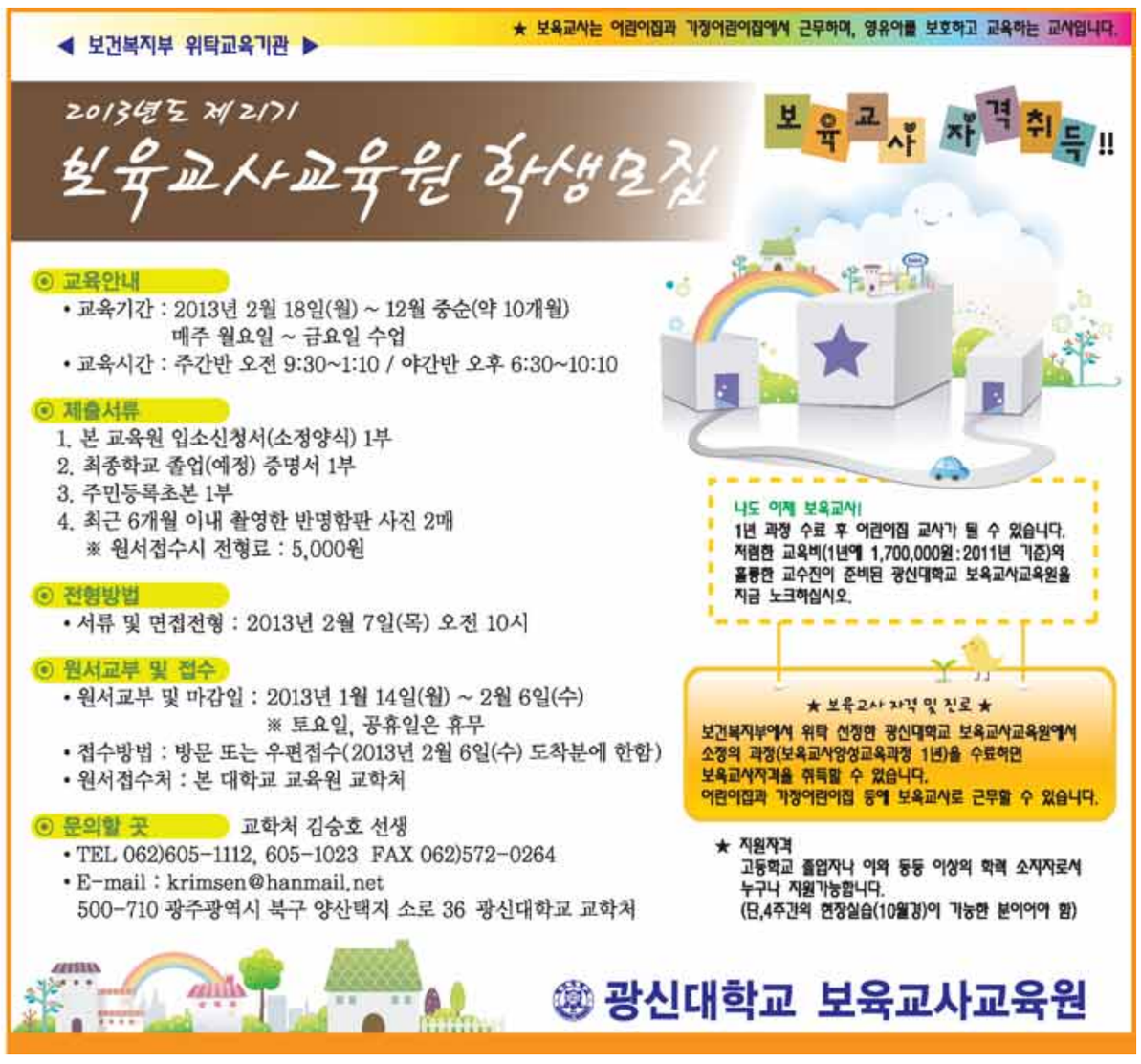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야한사진 돌려줘" 교도소 상대 소송

쌍나팔

○…교도소 수용자가 '야한' 사진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데 반발, 교도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과에 관심.

○…27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 수감된 A(46)씨는 최근 교도소를 상대로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중인 A씨는 지난해 말 광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전부터 남성 잡지에 실린 화보나 누드 사진 등 200여장을 을 갖고 있다가 교도소측이 영치하도록 하자 소지를 허용해달라며 소송.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